

2021 THEME 믿음의 태도가 신앙의 고도를 결정한다

I = Imaginative Ministry [창의적 사역]
M = Making Disciples [제자 양육]
P = Passionate Worship [열정적 예배]
A = Action for the Gospel [복음의 실천]
C = Community Outreach [이웃 섬김]
T = Training Missionaries [선교사 양성] &
 Transforming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킴]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 www.bkc.org ♦ bethel@bkc.org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school)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2-3학년 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11:00AM, 2:00P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8시 30분 · 목요일/오후 1시
- TV 방송 (미주 CGN TV):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2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 기도 Prayer All together 다같이
1부/권순열 장로 2부/정광목 집사 3부/김귀성 장로 4부/하현정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하박국 3:17-19 All together 다같이
4부/골로새서 3:1-4
- 말씀 Message 1, 2, 3부 Rev. David Kim 김형균 목사
- 감사인(人)**
- 4부 Rev. Chan Seok Suh 서찬석 목사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은혜
- 헌금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헌금송: 1, 2, 3부/최정원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믿음 in '21

- *축도 Benediction Rev. David Kim 김형균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목회자 칼럼
Pastor's Column

축제란 무엇인가?

What is a Festival?



김형균 목사 / Rev. David Kim

코로나, 팬데믹, 전염병, 락다운, 돌파 감염 등등 이러한 단어들은 지난 2년 가까이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입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의미는 두려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상황은 웃어서는 안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심지어 분위기 전환을 위해 “다 잘될 거야”라고 말하는 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축제”라는 단어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라는 이름에는 ‘축제’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아시나요? ‘축제’에는 ‘축하하고 제사를 지낸다’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 축제는 구원받은 감격과 감동을 나누고, 그 은혜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서로 축하할 일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천국 백성으로부터 축하받을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축제를 빼앗긴다면 소망 없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축제’에는 예배의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잔치의 성격으로 모여서 흥을 돋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축제는 반드시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데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베델이 지향하는바 영광스러운 주일예배는 매주 섬기는 자들의 기도와 최선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의 모임은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 빠지지 않아야 천국의 축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에 열리게 될 추수 감사 축제는 단지 우리의 단합,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깊은 고난 가운데 낙심의 소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가 더욱 빛을 발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시기였습니다. 깊은 밤 중에 우리를 찾아오신 세상의 빛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이 빛은 지금도 곳곳에서 감사의 축제를 드리는 백성들을 통해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 빛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구원의 은혜를 축하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축제입니다.

이 축제가, 감사의 계절에 베델의 가족들이 축제의 본질을 기억하며 한 믿음 안에서 펼치는 천국의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아름다운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성도의 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시편 50:23)”

Corona, pandemic, epidemic, lockdown, breakthrough infection, and etc. Such are the words that we have been hearing most often for the past two years – which all imply a sense of fear. At times it felt inappropriate for us to laugh or even to say, “Everything will be fine,” to lighten up the mood. Now there is a word that really does not fit our current situation: “festival.” It surely seems to be out of place. But, did you know that the word “saint” (which refers to a believer) has a connotation of a “festival”? And “festival” conveys a sense of “celebrating and offering sacrifice.” Thus for us saints (Christians), a festival is an act of sharing the affection and excitement for our salvation, and offering a sacrifice of thanksgiving to God who has given us this gift of grace. The grace of salvation that we have received is something worthy to celebrate with each other. Also living as children of God on this earth is something to be celebrated. If we were to lose this festival, then it will be the Christianity without hope.

“Festival” also means worship. It is not a feast just for the sake of having fun. For a festival of the saints must exalt the name God, who is the object of our worship. What is worship? It is a festival in which we offer our best to God. So each week, our Bethel Church strives to prepare the glorious Sunday worship with prayer and the utmost efforts by those who serve. We also must remember that the gathering of the saints can be a festival of heaven only if God – who is to be glorified – is not omitted. In that sense, our Thanksgiving Festival, which we will have next week, has a greater meaning than just coming together as a community. We are now going through a difficult time, and we are hearing the news of despair amid great adversity. But, it was in such time that the light of gratitude shined even more. Our Savior Jesus is the light of the world who came to us in the middle of a dark night. This light is still shining through his people who offer festivals in all places. The gathering of the children of this light – celebrating the grace of salvation and offering a sacrifice of thanksgiving to God – is our festival.

In this season of thanksgiving, as we remember the essence of this festival, let us enjoy a heavenly festival in one faith as Bethel families. Above all, I hope that this will be a festival of the saints through which God will be glorified. “The one who offers thanksgiving as his sacrifice glorifies me; to one who orders his way rightly I will show the salvation of God” (Ps 50:23).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형균 목사

감사인(人) 하박국 3:17-19

- 1.** 당신은 불평으로 문제를 만드는 타입입니까? 감사로 문제를 이기는 타입입니까? 지난 주간에 나에게 일어난 일 중 어떤 불평과 감사가 있었는지 한 가지씩 나누어 봅시다.

적용하기



- 2.**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선지자 하박국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합 1:2-3, 13)
그러나 결국 무엇이 그에게 믿음의 근원이 되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합 3:18-19)

- 3.**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이 부르는 이 찬양의 곡조는 어떠합니까?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말씀 안에서 감사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아래의 곡조를 작시해 봅시다.(참고/시 28:7-8, 사 12:2, 엡 6:10)

지금 나에게 _____ 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_____ .

- 4.** 감사인(人)으로 살기 원하는 나는 지금 어느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 직분 앞에 "감사"의 단어를 붙여서 사용한다면 지금 나의 어떤 부분에 변화가 시급한지 서로 나누어보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Beyond the Blue에는 사랑하는 사람, 가족을 잃고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상실의 고통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모임에 참석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으로 섬김받고 치유받으셔서 귀하게 재현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치유, 회복이 있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참가자와 스텝으로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처 입고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하시며 그 사랑이 잘 전해지도록 노력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키시는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께 모든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노영미 집사

사별 가정 치료 세미나 12주 과정이 벌써 10주차가 되어갑니다. 1회 첫날부터 9회를 지난 9주차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프로그램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매주 알게 하십니다. 매주 정성껏 준비해 주신 맛있는 저녁 식사와 찬양, 그리고 현실적 조언과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찬 치유의 영상이 성인 참가자 그리고 사별 가정 자녀들은 물론 봉사자까지 참여한 모두를 힐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이 지금 내 곁에 없기에 슬프고 안타깝고 또 아프지만 그들이 먼저 간 천국을 더

욱 소망하며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위로와 이끄심 아래 순종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또한 이 세상 현실 속에 남아있는 우리와 주변의 친지들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축복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가 더욱 명백해져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마저 생깁니다. 그래야 그토록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와 친지와 동기들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유익한 이 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신 우리 베델이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박현진 권사

"Beyond the Blue 푸른 명과 같은 아픈 마음 위에 서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임이 시작되기 한 달 전부터 매일 밤 10시에 중보기도로 사별모임은 시작이 되었고, 그 시간은 아프고 연약한 곳에 더욱 친밀히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낄 수 있었던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사별의 순간을 조금이라도 일찍 겪으신 분들은 아픔의 깊이만큼 믿음과 공감의 깊이도 참으로 깊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드리고픈 자리에서 오히려 제가 더 큰 위로를 받고, 잔잔히 나눠 주시는 아픈 삶의 이야기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함께 듣고 함께 울고 함께 공감하며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곤 합니다. 같은 아픔을 서로 나누며 이해하는 공동체의 사랑으로 주님 바라보며 남은 자로 다시 살아갈 새 힘을 얻는 참 행복한 모임입니다. 사별하신 분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영상의 메시지는 오히려 내 속에 해결되지 못한 아픔

을 어떻게 다루고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는 지침서와도 같아서 시간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픔이 있는 곳은 오히려 더 따뜻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Beyond the Blue" 모임이 참 좋습니다.

정모미 집사

Beyond the Blue사역은 베델교회에 특별히 사명을 주셔서 저희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으로 봄에는 이혼하신 분들, 가을에는 사랑하는 자녀나 배우자를 잃으신 분들을 위한 치유와 회복 과정을 돕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전문가의 치료 상담 영상과 직접 경험한 분들을 통해 힘든 과정을 극복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함께 경험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긴 팬데믹 기간 동안 더 힘든 시간을 겪었던 참가자들이기에 함께 하는 시간이 더 큰 치유와 기쁨이 더 한 시간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 봉사자들은 영혼을 담은 찬양으로 정성과 사랑을 담은 맛있고 따뜻한 저녁 식사로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의 자녀들도 함께 올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픔과 위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인 만큼 참가자분들이 이번 세미나 기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상실의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케어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한상섭 장로

BGC 이웃 사랑

아르지 않는 Thank's Giving~~

하나님께서 베델 그레이스 영어 교회와, 북한에서 온 8개월 아기와 싱글맘 가정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탈북자들을 돌보는 비영리단체에서 일하시는 분을 통해 만나게 된 이 귀한 탈북 가정은 여러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가정이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구해 이사하게 되어 가구를 비롯한 기본 살림 용품들이 필요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저희가 도움이 되야겠다는 생각했고, 이 가정을 위하여 모두 한마음으로 가구와 아기용품들을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열바인에서 다소 먼 거리에 살고 계시고 베델 등록 교인은 아니시지만, 저희가 섬겨야 할 분들이심을 느끼며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돕고자 하는 마음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마음이었다고 생각하니 더욱은 헤가 컸습니다.

저희가 도왔던 탈북 자매님은 현재 LA에 있는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다니시고 계십니다. 이 가족을 매주 뵙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손길과 임재하심이 그 가정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싱글맘으로서 아이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좋은 일자리도 구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베델 그레이스 영어 교회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계속 돌아보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주님 나라 확장"이란 모토로 주위를 돌아보는 교회가 되길 소원하며 커뮤니티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주님께서 저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 북한 가족과 만남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 가정을 도와드릴 수 있었던 기회도 분명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음을 확신합니다. 모인 소파 의자들 그리고 TV, 책상, 옷, 아기 스트롤러, 식탁 의자, 그리고 그 외에 작은 여러 살림용품 하나

하나가 주님이 우리를 통해 그분들께 드리는 사랑의 귀한 선물이 되었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Dan Nam 목사



예살 새가족 환영회

생명의 능력도신 여호와



지난 하루의 감사를 기록하던 중 베델교회, 그리고 예살 공동체가 가장 먼저 떠올랐고 그 감사 제목을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5개월 전에 미국으로 온 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잘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고민이 많은 제게 하나님께서는 지난 주일 설교와 셀모임을 통해 참 위로의 말씀을 부어주셨고, 특별히 저녁에 열린 예살 새가족 환영회를 통해 하늘 축제와 같은 아름답고 따뜻한 시간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온 맘 다해 헌신하여 열정적으로 반겨주시고 소중한 사람됨을 느끼도록 환영회를 섬겨주시는 한분 한분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휴식을 취하기에도 아까운 주일 밤, 전공, 배경,

등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과정과 이야기들이 달라 보이는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예살인이 된 것을 축하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보였을 것 같기도 합니다.

2021년 11월 7일, 저를 포함하여 매우 다양한 모습의 새가족들이 예살인이 되어 한 공동체, 믿음의 가족, 예수님의 몸 됨을 축하한 날입니다. 작고 큰 고민들, 기쁘고 슬프고 부끄러운 이야기들까지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넓고 안전한 울타리가 생긴 날입니다. 함께 울고 웃고 기뻐하고 서로의 집을 들어줄 수 있음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낀, 오래 기억하고 싶은 날입니다. 작은 하늘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아래 경험할 천국을 더욱 더 기대하게 된 날입니다. 예살과 함께 힘써 하늘나라 연습을 하기로 다짐한 날,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보내실 때 제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게 한 날입니다. 예살 공동체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성

도님들의 평안함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음에 행복합니다. 예살 새가족 환영회를 정성스럽게 섬겨주시는 교역자님들, 사역팀원분들, 셀목자님들, 또한 예살인들을 위해 중보 해주시는 믿음의 가족과 선배님이 되어 주시는 베델교회 성도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박찬미 자매(예살 청3)



평생 교육원-QTin 강좌(2)

QT의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컴퓨터에 아이콘을 클릭하면 관련 화면이 뜨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클릭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배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가기 위해서 QT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엄청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십니다. 기진맥진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따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QT의 시간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가장 중요한 일, 즉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제일 우선으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QT의 목적은 매일 만나는 도전 속에

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새 땅에 들어가며 그렇게 의지했던 영적 리더 모세가 더는 자기와 함께 하고 있지 않아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보다 든든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킨다는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죄악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혹될 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통제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힘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어떤 도전 앞에서 미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간다는 차원에서 QT는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QT의 목적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무시할 수 없는 QT의 목적은 영적 성장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딤후 3:16,17)"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하며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때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우리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온 교회가, 한 걸음 나아가서 온 세대가,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QT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서 더 건강한 교회, 이 사회를 밝히는 빛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베델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QT에 도전합시다!

김한요 목사



새가족 환영회

구하고 찾으므로



새가족 환영식을 처음 받아보았습니다. 도시락 가방의 낙엽 데코레이션은 그 동안의 시간이 자연스럽게 지나갔음을 얘기해주는 것 같아서 울었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아팠습니다. 미국에 와서 6년 동안 다닌 교회 목사님께서 갑자기 말기암으로 한달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교회 건물도 주인이 바뀌어 재건축으로 비워져야 했습니다. 또한, 저와 비밀친구였던 107세 외할머니도 건강히 계시다가 평안히 손 흔들어 주시며 6월에 주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따뜻하고 한없이 자비하시고 18년 병석에서도 가족간에 불평 한마디 나오지 않게 자식들을 사랑으로 키우신 시어머님도 8월에 주님 품에 가셨습니다.

코스코에는 가면서 교회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죄송했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교회도 없고 예배 드리러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주님께 붙어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다"란 말씀이 생각났으며, 살아나고 싶어서 예배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남편이 먼저 "은영씨, 이제 교회 정해서 다니자! 은영씨가 가자고 하는 교회로 가자."고 했습니다. 교회를 찾아봐야 하는데 마음의 여력이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하루도 빠지 않고 기도해주시는 부모님께서 저희 딸이 다니는 베델교회를 제안하셨습니다.

처음 온 날, 예배 시작 전 기도하며 '어떻게 살까요?'라고 주님께 기도하는데 예배 시작 때 목사님께서 허공에 손을 대고 리셋 버튼을 누르라고 하신 것이 응답을 받은 것 같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2021년 1월 1일 기도하며 올 한 해 받

은 말씀이 빌립보서였는데 마침 목사님 설교가 빌립보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라는 마음을 주셨고, 오자마자 2021 베델 심령 부흥회로 QT의 자리로 인도해주셨습니다. QR코드 신청했는지, 또 잘 받았는지 좌석은 목사님이 잘 보이는 자리인지까지 새신자를 엄청 챙겨주시는 이유경 권사님, 매일 굿모닝 베델 영상을 보내주셔서 QT와 함께 교회 일정까지도 체크하게 되었습니다. 믿음 목장, 행복한 셀의 김미진집사님의 삶의 간증을 들으며 이 셀로 꼭 오고 싶었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라는 말씀 그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새신자 환영회 속에서 낙엽처럼 자연스럽게 주님 안에서 리셋!

김은영 성도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 정승락 목사
 믿음 목장/예배/목회지원: 김형균 목사
 소망 목장/선교: 주성필 목사
 사랑 목장/훈련/베델뉴스/기도: 이충경 목사
 은혜 목장/전도/이웃사랑: 김홍식 목사
 화평 목장/세월위임/셀: 박경철 목사
 새가족/경조: 한순도 전도사
 BGC: Justin Kim 목사
 BGC(Family):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전도사
 일본어 예배/헵시바: 손용주 목사
 예삼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삼채플: 서찬석 목사
 예삼채플: 공병주 전도사
 예삼채플: 김유미 전도사
 영어고등부: 여옥제(John) 목사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교회학교 디렉터: 이진아(Jinah) 전도사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유아부: 장지은(Jieun) 전도사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해 전도사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성가대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사역 간사 및 인턴◎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한어권: 정티나 간사
 영어중고등부: Grace Park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마현진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안현미, 박성혜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중형, 김지현
 디자인: 박선경
 웹: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2021 추수 감사절 성찬식

2021년 한 해를 인내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신 모든 성도님께 뜨거운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베델교회는 11월 21일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성찬식을 갖고자 합니다. 이번 성찬식은 팬데믹 이후, 교회가 다시 전면 오픈되고 시행하는 첫 번째 성찬식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값집니다.

성찬의 의미는 첫째,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으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여 포도주와 떡을 먹으며 주님과 하나 되었음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공동체 안에서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과 이웃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풍성한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낼 것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추수감사 주일 성찬은 코로나로 인해 마음과 영혼의 궁핍을 느꼈던 성도들에게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일깨워 주며, 그 감사와 기쁨을 온 교회와 더불어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성찬식은 작년 추수감사주일과 같은 안전한 방법으로 시행하는데, 성찬 위원들이 떡과 잔을 나누지 않고 청결한 개인 성찬 키트를 사용합니다. 개인 키트는 예배당 안으로 입장하실 때 예배 안내위원이 주보와 함께 드릴 것이며, 예배 중 담임목사님의 집례에 따라 개봉하여 참여하시면 됩니다. 1년 중 가장 큰 축제 중 하나인 추수감사 주일에 많은 성도님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깊이 생각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 일시: 11월 21일(주일) 1부-4부 예배 시

*성찬은 세례교인에 한하여 참여하실 수 있으니 성찬 키트는 세례교인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헌금은 헌양예배 참석시 주보 안에 있으며, 온라인 헌금 시에는 "추수감사헌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11,12월)	11/21:	①부-김교식	②부-김동수	③부-김근수	④부-나승호			
	11/28:	①부-김도석	②부-김동진	③부-김동건	④부-송미진			
	12/5:	①부-김병수	②부-김권태	③부-김병찬	④부-이예지			
헵시바토요새벽 대표기도(11,12월)	11/20:	김동균	11/27:	김유호	12/4:	김경수	12/11:	김건중
강단꽃(11,12월)	11/14:	김교식, 김진환, 이주은	11/21:	김윤숙, 윤주원	11/28:	선상균, 주정숙	12/5:	송상희, 한순고

선교후원

[팍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루마니아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과테말라 실버 | 유한성(유영옥)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이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송봉(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루진, 온세상, 이희숙, 차은경, 김예평(김진영)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네이버스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리아 신학교, 한미가정상담소, GP미주본부, Good News Spreaders(GNS), JAMA,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 **포도현금 - 연보라색 현금 봉투로!** 오늘(14일)은 포도현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포도현금은 베델의 다음세대를 위해 헌신하시는 교회학교 교사들을 격려하기 위한 현금으로서 전 교인이 각 10불씩 현금하시면 됩니다.

◆ **성찬식**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각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7면 참고)
일시: 11월 21일(주일) 1-4부 예배 시 *안전을 위해 개별 성찬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 **주일예배 및 토요 험시바 전면 오픈**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열화상 카메라와 마스크 착용 및 예배 후 방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실시됩니다. 베델교회는 온라인과 현장에서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 **예배 후 즉시 출차 / 주차증 발급 안내** 베델 캠퍼스는 주차증이 있으신 성도님들에 한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으며 비전주차장(새벽 5시 30분-오후 1시 30분까지 셔틀 운행)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올 말까지 2020년 주차증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새롭게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차사무실로 오셔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차증 발급 대상: ①임신 8개월부터의 산모 ②18개월 미만의 자녀를 두신 부모 ③80세 이상 몸이 불편하신 분 ④건강상의 이유로 교회 셔틀버스를 이용하실 수 없는 분

◆ **목장별 추수감사축제** 다음 주일에 있는 목장별 추수감사축제에는 온 교우들에게 터키만찬이 준비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순서 추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간지참조)

일시/장소: 11월 21일(주일) 오후 4시, 본당

참가 목장: 믿음, 소망, 사랑, 은혜, 화평, 예살, JM

*본당 앞 부스에서 함께 나눌 선물을 도네이션 받습니다.

도네이션 문의: 우성무 추수감사축제팀장 (714)713-5888

◆ **수요 특별기획 예.수.아** "예수님과 함께 하는 수요일 아침"이 찬양과 삶의 이야기를 담은 형식으로 방영을 하게 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17일)에 새로운 게스트와 함께 삶과 말씀을 찬양에 담아 은혜로운 수요일 아침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 **예살 B&B DAY** 예살의 대학생 새가족들을 교회로 초대하는 이 자리를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일시/장소: 11월 14일(주일) 오후 5시, 체육관

문의: 김유미 전도사 (714)900-1253

◆ **2022년 베델 한국학교 봄학기 등록안내** 베델 한국학교가 대면과 비대면 수업으로 2022년 봄학기를 시작합니다. 등록은 베델 한국학교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방법: 베델한국학교 홈페이지 bks.bkc.org

등록 기간: 11월 8일(월) - 11월 29일(월)

등록 대상: 5세 이상부터 중등학생(2021년 9월 1일 기준)

문의: 이석희 장로 (949)697-7606, 최문정 교사 (949)836-7687

Bethel Announcements

◆ **BYM 중고등부 연합 겨울 수련회** BYM 자녀들이 서로를 알아가며 예수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련회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신청은 12월 5일(주일)까지 받습니다.

등록: BYM 홈페이지 bethelunited.org/retreat

날짜/장소/대상: 12월 27일(월)-12월 29일(수), Irvine Ranch, 6-12학년

문의: 김학남 집사 (408)806-4133, 여옥제 목사 (818)270-5454

◆ **교회학교 감사일기 쓰기 "Count My Blessings Journal"**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여 K-5학년을 대상으로 감사일기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 담당 전도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마감되었습니다. 기간: K-3학년: 현재-11월 21일(주일)까지, 4-5학년: 현재-11월 28일(주일)까지

◆ **교회학교 추수감사주일 특별예배** 교회학교 전 부서에서 추수감사주일(21일)을 맞이하여 특별한 예배와 액티비티, 크래프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주일이 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날짜/대상: 11월 21일(주일) 2, 3부 주일예배, 영아부-초등부, 소망부

◆ **Lost & Found 운영 안내** 교회 내에서 물건을 분실하신 분들은 주일예배 후 본당 앞 Lost & Found 부스로 오셔서 분실물을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분실물 사진 확인 방법: 교회 홈페이지에서 Lost & Found 아이콘 클릭

문의: 이재석 집사 (949)943-0850

◆ **온라인 현금 안내 및 교적번호** 현금 드릴 때 현금봉투에 교적번호를 반드시 명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현금 시에도 memo란에 교적번호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금 내역서** 2021년도 현금내역이 교적에 기재된 집 주소로 발송됩니다. 주소 변경이 필요하신 분은 현금봉투 아래 주소 변경란에 기재해 주시거나 교회 사무실로 변경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교회 사무실 (949)854-4010, bethel@bkc.org

◆ 목회자 동정

- 예살 청년(청3 목장)을 섬기셨던 서찬석 목사님께서 개인적 사정으로 이번 주로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섬김에 감사 드립니다.
- 베델콰이어와 베델오케스트라 지휘자로 헌신해 주실 김형직 목사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 **축하해 주세요** 현호승/김나연 전도사님 가정에 둘째 아들 정인(Zion)이 11월 8일(월)에 태어났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 故 김영순 권사님(김옥석 집사의 장모, 김영순 권사의 모친)이 11월 5일(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故 노경자 전도사님(한정훈 집사의 모친, 김수연 집사의 시모)이 11월 9일(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유미경 권사 ■ 사진: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 기자: 강수연 자매, 김선홍 권사, 김지연 집사, 김휴리 집사, 박인주 집사, 박정원 집사, 박진아 권사, 안예진 집사, 최경희 권사, 허성국 집사, 황수정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비전 주차장 3377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Grateful Person

Habakkuk 3:17-19

- 1.** Are you the type of person who makes problems with complaints or the one who overcomes problems with gratitude? Share one of the complaints and gratitude that happened to you during the week.

Apply to Life



- 2.** We can see the prophet Habakkuk complaining to God in a situation where he cannot be thankful at all. (Habakkuk 1:2-3, 13) But what eventually became the source of his faith? (Habakkuk 3:18-19)

- 3.** How is the tone of this hymn sung by Habakkuk in today's text? Compose the following song with a heart that confesses your gratitude applying your own situation in God's word. (Ref / Psalm 28:7-8, Isaiah 12:2, Ephesians 6:10)

Even if I don't have _____ right now

The Lord is my _____.

- 4.** Which position have you been called to since you decided to live as a grateful person? If you put the word "grateful" in front of that position, which part of you is urgently needed to change? Share and pray for one another.